

제 59 강

그리스도인의 자유

■ 성경본문 갈라디아서 1:1-6:18 ■

프렐류드(Prelude)



바울의 선교 여행

오늘 우리는 로마서와
쌍벽을 이루는 갈라디아
서와 마주합니다. 갈라디
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인의 자유’입니다(갈 5:1).
로마서가 은혜의 믿음에
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인’(義認)이었다면 갈라디
아서는 인간을 율법으로

부터 해방시킨 ‘독립선언서’ 혹은 ‘대헌장’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교회에도 복음을 위장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또다시 율법의 굴레에 얹어매려 하였
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마저 부인하고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이에 격노한 바울은 다른 편지와는 달리 첫머리에서 감사와 문안 대신 직언으
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격노의 편지’라고도 부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1.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갈 1:6-2:14),
2. 은혜에 의한 ‘의인’(義認) 신앙을 다시 변증하고(갈 2:15),
3. 구원받은 자의 자유와 삶을 권면합니다(갈 5장, 6장).

I. 주요 내용

1.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갈라디아서 1:1-3:14)
2. 그리스도인의 자유(갈라디아서 5:1-26)

II. 시대적 배경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에는 이미 여러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갈 1:2). 그러나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는 두 곳이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행 16:6, 18:23). 16장 6절은 사도와 일행이 이곳을 지나간 것을 언급하고, 18장 23절은 제 3차 전도여행시 교회가 이미 존재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후 55-58년 사이로 추측합니다. 편지 기록 장소도 바울의 여행을 기초로 하여 에베소, 마케도니아 또는 고린도 등으로 추론합니다.

〈연대표〉

갈라디아서 기록
(주후 50-55)

III. 말씀과 해석

1.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갈라디아서 1:1-3:14)

갈라디아 1:1-3:14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 교회를 위해 쓴 편지의 핵심인 은혜-믿음-의인 사상을 요약한 바울의 신앙고백입니다.

- (1) 사도가 된 이야기(갈 1:11-24)
- (2) 할례자들과의 대결(갈 2:1-10)
- (3) 믿음으로 의롭게 됨(갈 2:11-3:14)

특별히 다음 몇 구절을 주시하고자 합니다.

(1) 첫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갈 2:16)입니다.

자신은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요, 율법을 통달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지만, 율법은 생명이 아님을 영혼 깊이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폭발하였습니다.

(2) 둘째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갈 2:16)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대목은 이미 로마서에서 길게 고백한 신앙에서 드러내 보인 바울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일깨우는 안내일 뿐,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고백입니다.

(3) 셋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뜻은 나의 옛 존재는 죽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새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 또

다시 율법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을 통탄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갈 3:1)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갈 3:3-5)

2. 그리스도인의 자유(갈라디아서 5:1-26)

어리석고 아둔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분노는 오히려 한 가지 역설로 표현되는 격려의 말로 변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갈 5:1)라는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옛 사람으로부터,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아니 사망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제고 다시 추락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예지 하나를 제시합니다. 자유는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갈 5:13-16)하는 때 살아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갈 6:2)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닐 때”(갈 6:17) 자유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갈 5:22-23)를 창조하는 성령의 매개가 된다고 격려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배신하고 사도성을 폄하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격노’로 글을 시작했으나, 끝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소망과 약속으로 편지를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신의 신앙고백이고, 자유한 사도로서 품위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IV. 성찰과 나눔

1.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선언이고 대 현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자유'입니다.

2. 그러나 이 자유는 두 차원이 서로 얽혀있는 역설(paradox)입니다. 한 차원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free from'이라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시기, 분냄, 당 짓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갈 5:19-20) 같은 것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은 '무엇 무엇을 위한 자유'(free for)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화평을 창조하기 위한 자유입니다(갈 5:20).

3. 엄밀한 뜻에서 '창조와 섬김을 위한 자유'(free for)가 없는 '무엇 무엇으로부터의 자유'(free from)는 자유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얽매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창조하는 자유입니다. 이 둘 사이, free from과 free for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끼어 있습니다.

4.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기독자의 자유'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였다.

I am free from all.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매인 바 되었다.

I am bound to all.